

남구청 공무원, “매주 화요일·목요일 ‘청렴 진단’ 한다”

10월말까지 석달간 ‘자가학습 시스템’ 가동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과 함께 해가 거듭할수록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청렴 진단을 실시한다.

남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시작 전에 내부 행정망을

활용한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며 “오는 10월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돋보기 진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은 개인별 청렴도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청 모든 공직자들은 오는 10월 27일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자가 진단에 나선다.

자가 진단을 위한 학습 콘텐츠는

6개 범주로 구성됐다.

모든 공직자들은 본인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진단 평가를 비롯해 이해충돌 방지법 10개 행동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는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 부정 정탁 및 행동강령 등의 상황을 전달하는 청렴 교육, 사자성어로 알아보는 부패행위 사례 콘텐츠 등을 학습하게 된다.

석달간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진단해 비리 및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관행적 행태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남구청 공직자들은 가족 및 친인척 등을 통한 수의계약 쟁거 주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이용 금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및 주식 투자, 상급자를 비롯해 직무 담당자의 부당한 지시와 갑질 행위 여부 등을 진단하며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동구, 충장월드퍼레이드 경연 참가자 모집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문화 예술 축제 ‘제19회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퍼레이드’의 핵심 콘텐츠인 ‘충장월드퍼레이드’ 경연에 참여할 단체 및 개인을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잊을 수 없는 영화의 명장면’을 주제로 한 ‘충장월드퍼레이드’ 경연은 국내·외 유명 영화 명장면 연출, 추억의 레트로 감성 등을 내용으로 오는 10월 15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경연 참가는 단체와 개인 모두 가능하다. 단체 부분은 퍼레이드가 가능한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 예술단체(음악·무용·연극·마임·퍼포먼스·무예·미술 등) ▲체육단체(태권도·무술·체조·오토바이·자전거·롤러스케이팅 등) ▲동아리 ▲사회단체 ▲학교 단체 등이다.

개인 부문은 전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연인·친구·가족·동창회·소규모 기

업 등 10인 이하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고 참가 방법은 충장축제 누리집(www.donggu.kr/cjf)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cjfest1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한 참가자들은 팀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 받게 된다.

동구는 시민평가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퍼레이드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팀을 선정해 대상 1팀(2천만 원), 최우수상 1팀(1천만 원), 우수상 1팀(500만 원), 장려상 1팀(300만 원) 등 총 5천1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는 ‘제19회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퍼레이드’이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최고의 문화 예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오는 10월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매니페스토 특강 개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최근 3층 회의실에서 21개 부서의 공약사업 팀장과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실천계획 평가 안내와 공약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넓히고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 알리는 등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민선 8기 북구는 더 큰 도약과 확실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활력도시 ▲AI 거점 도시 ▲드론산업 활성화 ▲청년도약 도시 ▲소의 없는 포용복지 도시 ▲마을 브랜드화 ▲매력적인 관광 도시 ▲도시재생 혁신 ▲탄소중립 선도 도시 ▲재난 안심 도시 등 44개의 공약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 실천계획 평가 소개’라는 주제로 불확실성과 대전환 시대의 도래, 매니페스토의 실체와 시민 민주주의, 미래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등을 강연했다.

특히 건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자발적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44개 공약은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행력을 확보한 후 10월 말 북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2 협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토론 진행·촉진자) 양성교육 수료식을 열고, 모든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협치 퍼실리테이터 교육 수료식 개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2 협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토론 진행·촉진자) 양성교육 수료식을 열고, 모든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광산구가 주최하고 교육그룹 오롯이 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시민 주도의 공론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양성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퍼실리테이션 기본 이해부터 모의 공론장 운영 및 워크숍 기획 등 실습을 포함한 기본과정(8회)과 심화 과정(4회) 등 총 12회, 36시간으로 진행됐다.

총 26명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배움의 여정을 마치고 이날 광산구 협치퍼실리테이터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수료식에선 수료증 전달과 함께 그동안 배움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수료생은 앞으로 지역 토론회, 공론장 운영 시 회의를 보조하고 촉진하며 참여자 간 의사소통 증진과 회의 목표에 따른 결과물 도출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서구, ‘내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모

내달 5일까지 신청서 제출, 누구나 참여 가능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서구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실현을 통해 “함께 서구 우뚝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광주 서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오는 8월 5일까지 서구특·국·민신문고·전자우편 등 온라인과 우편·방문·팩스 등 오프라인을 통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서구청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우수상 1명에 50만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원, 장려상 6명에 각 1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구청 기획실(062-360-7038)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이 주민 스스로 일상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시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